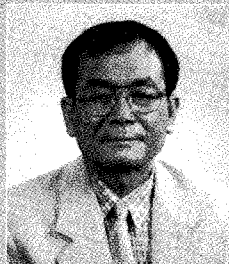




2001년에는 어려운 낙농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유 해 역
빙그레연합지회장

2001년에도 어김없이 우유의 수급불균형은 찾아 올 것이고 해소책이 궁극적으로는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년에 걸쳐 80% 이상 참여하게 했던 자조금추진위원회에서는 2001년에도 연속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자구책이면서 낙농을 하는 농민도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금년을 지칭해서 새로운 21세기 원년이라고 해서 다른 해 보다는 달리 듣기 좋은 덕담이 오고가고 해서 운세로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남다른 감회와 희망과 포부로서 낙농경영과 생활설계를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사고일 것이다.

희망에 넘쳤었던 2000년 3월에는 충격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망과 충격으로 점철되어 발생지역 10km반경 내의 낙농가는 생산의욕 상실 증후군에 걸려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건진치 못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축산농가와 당국이 사려깊은 주의와 경각심으로 대처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목장에서 항상 일에만 열중하는 농가도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에는 진력이 나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우유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소화흡수율이 높은 칼슘과 114가지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고 신선한 완전식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공급한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홍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체화분유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합시다.

2001년에도 어김없이 우유의 수급불균형은 찾아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해소책이 궁극적으로는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년에 걸쳐 80% 이상 참여하게 했던 자조금추진위원회에서는 2001년에도 연속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자구책이면서 낙농을 하는 농민도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조금에 관해서 다소의 의견이나 시각차이는 있어도 생산자는 단합이 생명이라 하는데에 주안점을 인식하여 적극적

이면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인색은 금물이라 생각하고 불참자 없는 그리고 무임승차자라는 오명을 배제시키는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 그리고 수급조절한다는 낙농진흥회 발족에 관해 매우 좋고 바람직한 낙농정책이라고 환영일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엑스포호텔에서 가졌던 전국 낙농지도자 대회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공업부의 전국화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질문을 어느 낙농지도자가 할 때 적극 공감하면서 마음속으로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낙농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낙농가와 유업체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국은 어려운 문제는 접어 두고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유가공업체만을 대상으로 납유농가와 그 단체에 다소의 보조금을 줬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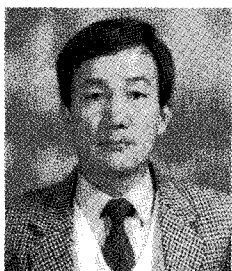
이는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낙농가의 입장은 전혀 고

려를 안한 권위만을 앞세운 악법일 것이고 반농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방법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낙농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철회될 때까지 성토해야 합니다.

희망차고 벅찬 2001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일련의 낙농현안이 모두가 완전히 해결돼서 낙농가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낙농복지사회 국가가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2001년 새해 아침에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필자연락처: 031-958-2586⟩

낙농이 명실공히 농업의 꽃으로 활짝 피는 한해가 되었으면



이 종 영
충남도지회장

모든 유제품은 소비자의 구매형태에 따르기 위해서 낙농가, 유업체 그리고 정부 등 낙농관련자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와 뜻이 모아져야만 되겠다.

낙농육우산업이 명실공히 이 땅에서 농업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낙농육우인이 모두 다 하나되어 병 들고 시들어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2001년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 아침인가 하면 벌써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고, 첫추의 시

작인 월요일인가 하면 주말인 토요일이 된다.

매월 월초인가 하니 월말이

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인가 했더니 연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없이 낙농육우산업 현장